

Radical Disciple X I.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1. 타락에 대한 성경적 관점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죄로 세상은 타락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타락을 통해 사람은 고통의 실존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창조와 완전히 다른 '타락'이 없다면 '구속'이라는 재창조를 알 수 없다. 즉, '타락' 자체에 대한 시각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이미 구원받은 온전한 존재인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의 실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죄로부터 온다. 죄는 연약함이다. 연약함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핍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적 고통'이다. 존재적 고통이란 물리적인 환경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말한다 (입양된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를 그리워하는 고통과 같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낳아주신 부모를 만나야 해결된다). 그러나 완전함(영)은 부족함이 없음을 말한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연약함은 무엇인가? (연약함이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문제-타락의 상태를 말한다). 창조의 상태로 회복된 사람에게 고통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 신앙의 괴리감은 '온전함과 완전함', '연약함과 부족함' 사이에 있는 괴리감이다.

이 부분이 온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복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을 말한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바로 '천국복음'을 알리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가장 기쁜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죄인의 연약함으로 파생되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실재적 답이다. 이 답을 얻은 상태가 '진리'이며, 그 삶의 속성이 '자유'로 나타난다.

'타락', '죄'를 바라보는 시각, 즉 내 안에 있는 검은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 셋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나, 타락한 나, 거절감, 정죄감, 수치심을 느끼는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기 싫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예수님이시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이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미 원 창조의 모습에서 떨어진 타락의 존재이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받아들이기 싫은, 혐오하는, 지우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셨다고 되어있다. 놀라운 말씀이다.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사람들 안에 있는 실재적 고통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처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로 인한 열등감, 두려움, 절망, 낙담, 자괴감, 허무함이 고통이다.

2. 사랑

요한복음 3:16절에 보니 답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하셨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랑'이 답이다.

(1) 사랑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랑의 열쇠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반응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 예가 탕자의 비유이다. 아버지의 아들로 창조의 온전한 형상으로 있었을 때나, 집 나간 탕자처럼 타락의 형상안에 비참해졌을 때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하다. 이 마음으로 타락한 나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사랑은 그래서 실재적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존재의 상태를 보지 않는다.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보는 것이다.

파괴된 탕자의 모든 형상이 아버지에 의해 완전히 회복된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전적인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 진다. 탕자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타락한 자신이 밟고, 아쉽고, 후회되는 것 말고, 탕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는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은 타락한 아들의 모습일 때도 변함이 없다.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으로 내가 온전하다는 진리를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존재적 사랑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복음이 이와 같다. 복음은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랑의 존재이며,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깨어짐은 (타락, 죄, 악, 연약함) 재창조로 가는 가장 분명한 통로이다.

아담 안에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즉시 '예수그리스도'가 계시 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아담의 깨어짐으로 인해 예수는 우리에게 실재가 되었다. 마찬가지로이다. 오늘 내 안의 연약함과 깨어짐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강력한 통로이다. 바로 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이 된다. 죄인 중의 죄인인 나를 지탱해주는 예수의 사랑은 진짜이다. 요한복음 3:16절에서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된다.

나를 향한 진짜 사랑은 내가 곤경에 처할 때 나타난다.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고난과 어려움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척도이다.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의 차이점은 하나이다. 고난앞에 선 자세이다. 복음서는 고난앞에 다 배반하고 떠났지만, 사도행전은 그와 반대의 모습이다.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알 수 있다.

[로마서 5:20-21]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방점이 있다. 은혜는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는 죄인됨의 고백이다. 죄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현실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연약함으로 인한 깨어짐이 있어야 재창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는 필요한 것도 없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없게 되는 것이다. 진짜 타락은 주님이 내 삶 안에 더 이상 갈망의 존재가 되지 않는 그 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의 첫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천국은 가난한 마음에 담겨진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나타난 연약함을 사랑하라. 그 곳은 예수가 필요한 나를 볼 수 있는 장소임을 명심하라.

(3) '정 - 반'

정의 반대 '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자. 진짜 사랑은 타락한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좋은 예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다.

ㄱ) **첫째 계명** :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어떻게 실재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다. 그에 대한 답이 둘째 계명이다.

ㄴ) **둘째 계명** : 이웃을 사랑하는 일. 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나와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한계가 있다.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일이 가능한 존재는 딱 한 분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진짜라는 것이 보이는 영역에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정죄하고 파괴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의 진실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웃은 내게 공존할 수 없는 존재, 반대의 존재, 원수이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악함을 보는 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그 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 내 안에 능력의 실재가 된다.

그 말은 첫째, 둘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분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다. 내 안에 일어나는 연약함은 온전함의 한 측면이라는 사실, 즉 온전함은 연약함과 반드시 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연약함과 온전함은 같다. 하늘이 있어야 땅의 개념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고린도전서 13:9-10]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을 말한다. 결국 사랑이다. 그 사랑이 예수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 사랑안에 우리의 연약함은 이미 온전함의 옷을 입는 신비를 경험한다.

3. 십자가

정-반 그리고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통일이 된다.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 영적인 것, 즉 사랑이 된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사랑으로 이 일을 완성하셨다.

십자가는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을 처리하는 자세로부터 나온다. 그 자세가 사랑이다. 그 때 사랑의 속성에 눈을 뜬다. 사랑이 구체화된다. 용납, 섬김, 존중, 희생을 배운다. 그 순간 본질을 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다. 바로 그 때가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때이다. 기적이 일어난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는 순간이다. 사랑만이 '반'을 이길 수 있다. 내 안의 타락과 연약함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 사랑의 본질을 경험해야 예수님을 알게되며, 그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안의 약함(반)을 처단하기 위해 스스로 짐승(제물)이 되신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자.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자.

'반'이 사랑 안에서 부활되는 것이 영이요, 재창조요, 이 시대의 진짜 능력이다! 나와 다른사람, 다른의견, 다른세대를 향한 존중의 마음은 간음한 여인을 존중하신,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진짜 복음이다!

결국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사랑이라! 제자의 길은 사랑을 더 깊게 진짜로 아는 여정이다. 더 큰 사랑을 구하자.